

부활초 (candela paschalis)

부활 시기 미사 중에는 독서대 옆에 부활초를 켵니다. 파스카 성야 때 축복된 부활초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초는 벌들의 밀랍(蜜蠟)으로 만들어지는데, 예부터 벌은 동정성을 지닌 창조물로 여겨졌고, 벌에게서 얻은 밀랍은 동정 잉태의 결실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초에 붙여진 불은 어둠을 밝히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킬뿐더러,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며 앞장섰던 불기둥(탈출 13,21.22; 14,24)을 떠올려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파스카 성야 '부활 찬송'(Exsultet)에서 장엄하게 선포됩니다: "이 밤에 불기둥의 빛으로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셨나이다." "거룩한 교회는 벌들이 만든 이 초를 봉사자의 손으로 장엄하게 바치며 아버지께 이 제사를 봉헌하나이다."

부활초에는 십자가가 새겨지고, 십자가 위에는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인 알파(A)가, 아래에는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Ω)가 적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뉜 네 공간에는 그해의 연도가 표시됩니다. 또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섯 상처를 나타내는 다섯 개의 붉은 향 덩이가 켵힙니다.

사제가 축복한 새 불꽃을 부활초에 붙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제(또는 부제)는 부활초를 들고 행렬하며 "그리스도 우리의 빛"을 세 번 노래하는데, 두 번째 노래한 다음에는 부활초에서 불을 당겨 모든 신자에게 전달합니다. 파스카 성야 미사 중 세례성사가 거행되는 경우엔, 세례 때 사용할 물에 부활초를 담그며 세례 수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례 서약 갱신 예식 때는 다시 한번 부활초의 불을 붙여 모든 신자에게 전달합니다.

부활초는 부활 시기, 곧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미사와 성무일도 등 전례 때마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가 끝나면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다 세례성사와 장례미사 때 다시 사용됩니다. 이는 부활초가 새로 태어나는 이의 영적 생명과, 고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

주 그리스도께서 어제와 오늘도 (십자의 세로줄을 새기며)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십자의 가로줄을 새기며)

알파이며 (십자의 세로줄 맨 위에 A를 새기며)

오메가이시고 (십자의 세로줄 맨 아래에 Ω를 새기며)

시간도 (그해 연도의 첫째 숫자를 새기며)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둘째 숫자를 새기며)

영광과 권능이 (셋째 숫자를 새기며)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마지막 숫자를 새기며)



(향 덩이를 하나씩 켵으며)

1. 주 그리스도님
2. 거룩하시고
3. 영광스러우신 상처로
4. 저희를 지켜 주시고
5. 보살피 주소서. 아멘.